

지방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 본격화

한창섭 차관 주재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지방규제혁신 특별전담반 구축·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 분야 덩어리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초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의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회의는 지방규제 혁신을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 간 협업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 정부 지방규제 혁신은 △덩어리 중앙규제 해소 △지자체 현장규제 해소 △지자체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3가지로 추진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덩어리 중앙규제를 발굴·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차장·공원·수도 등 부대시설 설치 면적 제한과 같은 산업단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건축물 증설 시 용적률·건폐율 제한과 업무관리자 의무고용 등 공장 증설 관련 규제도 푼다.

농수산물 유통시설 개선과 정비 명령권한 등 지방이양 과제는 개선한다. 개선이 시급하거나 복잡한 과제는 향후 행안부와 관계부처의 현장 방문과 이산민 행안부 장관 주재 '지역현장토론회'를 통해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담반을 통해 지자체 현장규제 40건을 개선한다. 도로점용료의 과도한 과금 등 그림자 규제와 인허가 신청·승인까지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무원 소극행정에 의한 행정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게 된다.

우수 개선 사례는 격월로 정기 전담반 회의를 통해 타 지자체에 전파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경제활동 지원 성과를 중심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한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돼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그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북학 이끌 인재를 찾습니다”

제4기 전북학 우수학위논문 지원사업 지원자 공개모집 20일까지 우수학위논문 모집... 지원금 지급·시상 예정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 휘하 전북학연구원센터는 전북학 관련 '제4기 전북학 우수학위논문 지원사업'의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전북학 우수학위논문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정체성 확립과 도민 자긍심 증진에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를 지원, 전북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8월 20일까지 우수학위논문을 모집해 선정된 신진연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응모자는 지원 학위논문에 관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각 분야 전문가가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자는 전북학연구원센터 성과 발표회에 참석하며, 수정한 원고를 전북학연구원센터 학술지 '전북학연구'에 게재하게 된다.

선정자는 전북학연구원센터가 발행하는 상장과 함께 석사 각 200만원, 박사 각 3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선정인원은 석사 2명, 박사 1명으로 총 3명이다.

모집 대상은 전라북도 혹은 관내 시군의 역사·문화 관련 주제로 '도내'의 대학에서 2019년 2월 ~ 2022년 8월 내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신진 연구자이다. /김경수 기자

출판문화진흥원 - 책마을 해리, 농촌 독서문화 활성화 '맞손'

공동세미나·농촌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독서환경 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과 고창 책마을해리(총장 이대건)가 농촌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출판문화 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국가 지식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7월에 출범하여 2015년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일으키는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마을이다.

8.3 고창 책마을해리 책 학교에서 진행된 자매결연 행사는 도농융합 상생교류 활성화와 지역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식과 함께 '농촌 인문학 가치창출 방안'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도 진행됐다.

특히, 금번 자매결연은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농촌마을이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을 마련하자는 최초의 협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역사사업을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농촌활력과 이지형 과장은 "농촌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

이며 앞으로 이전기관과 농촌마을 간 자매결연을 통해 이전기관이 지역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여름 사료작물 생산·이용 확대 지원

축산농가 경영부담 완화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사료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사료작물 생산량 확대에 나선다.

전북도는 양질의 국내산 여름 사료작물의 생산·이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내 여름 사료작물 재배 농가 및 경영체를 대상으로 여름 사료작물 파종 실태 점검을 8월 8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파종 실태 점검에서는 여름 사료작물 재배면적, 품종 생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kg당 500원인 수입 건조(뉴얼라이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kg당 200원의 국내산 옥수수 사일리지 수확 건조를 대체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라북도는 올해 조사료 생산 확대와 유통·소비 활성화로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저축비 지원,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 등의 사업에 582억원을 지원한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2023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8월 중순까지 시·군에 신청... 2년간 10억원 지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오는 8월 22일까지 2023년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지원사업은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규모화 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해당 지역의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공동경영 능기계류, 고품질 농산물 생산·가공 시설·장비(공동육묘장·공동선별·포장시

설·저온저장고·가공시설 등), 농업인의 조직화와 역량 강화, 주산지 협의회 운영 등에 개소당 10억 원 정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경영체와 품목이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경영체의 자본금과 신청 품목 경영체의 자본금과 신청 품목 취급액이 지원 기준을 충족한다면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모두 신청 가능하다.

지원 품목 중 해당 시군 주산지 품목 또는 주산지가 아닌 곳은 농산자조금(의무·임의) 품목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품목이 시군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전략 육성 품목으로 반영돼야 한다.

특히, 경영체의 중복 지원에 대한 제한이 완화됐다.

기 지원 경영체는 다른 품목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받은 지

4년이 지났다면 같은 품목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경영체는 신청 품목 육성 방안을 담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8월 중순까지 해당 시·군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경영체는 오는 9~10월 농식품부의 서면 및 발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2년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신청서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은 전북의 대표 원예농산물 주산지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군산시, 산단 대기·악취 모니터링 추진

군산시는 대기와 악취측정이 가능한 이동식 측정장비와 환경감시용 드론을 활용해 산업단지(지방산단, 국가 1·2산단, 새만금산단)지역의 환경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산업단지는 환경관리 권한이 발전소 등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은 통합허가법에 의해 환경청에서 관리하며, 그 외의 사업장은 도청 관할로 관리하고 있다.

시는 실질적인 환경관리 권한이 없으나, 환경민원은 시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단지 지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 기

관을 떠나 시 차원에서 대기 및 악취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 계획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대기 오염물질(악취)다량 배출 사업장과 폐기물 및 골재 야적장 등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중 환경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할기관에 신속히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모니터링 자료는 주요 측정장소별 대기질 데이터 구축과 환경기초 자료로 이용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대기오염 및 악취저감을 위해 측정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부속대학과 원광대 교수 역임
 - 전주매일 특약강사
 - 한스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0주년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JTV,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포츠 사면네스트 • 송영로목사 • 심리상담사
 - 저서 "665 스포츠 지역유니캐이션", "나쁜 배운, 뱀, 뱀"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계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문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공지능학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